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2.1>

JCCT 2024-3-1

## 과학기술 시대 노인교육의 방향

# Direction of Elderly Education in the Age of Science and Technology

윤옥한\*

Yoon Ok Han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 시대 노인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은 첫째, 노인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과학기술 시대 노인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노인교육의 현황으로 노인교육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더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제공되고 있다. 노인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노인의 학습활동의 경우 전체 노인의 11.9%가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노인교육 학습활동 참여자의 학습활동 실시 기관은 노인복지관이 35.5%로 가장 많았다. 과학기술 시대 노인교육의 방향으로 첫째, 노인 교육내용 구성의 경우 디지털 기술 및 정보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 교육 방법의 경우 맞춤형 노인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교육 기관 운영의 경우 노인교육을 위한 전문 교육 센터를 더욱 강화하고 지원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사회제도의 구축과 재정적 투자를 사회적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자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고 있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사회보장 영역의 부담이 있지만 노인의 잠재된 역량과 경험을 새롭게 인식하여 사회적 자원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과학기술 시대의 노인교육은 미래 사회를 건강하고 발전적으로 건설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노인교육, 노인인구, 노인교육 방향, 노인교육 방법, 노인교육 기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elderly education in the age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research contents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are, first,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elderly education, and seco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elderly education in the age of science and technology. Due to the current status of education for the elderly, education for the elderly continues to change and develop, and various programs and activities are provided to help the elderly enjoy a richer retirement life. According to the survey report on the elderly, 11.9% of all elderly people participate in learning activities. Senior welfare centers accounted for the largest number of institutions conducting learning activities for elderly education learning activities participants at 35.5%. First, in the direction of elderly education in the age of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on the use of digital technology and information is necessary in the composition of elderly education contents. Second, in the case of elderly education methods, customized elderly education methods are needed. Third, in the case of operating elderly education institutions, specialized education centers for elderly education must be further strengthened and support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lready forming a consensus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social systems and financial investment due to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should be considered a new growth engine rather than a social crisis. Although there is a burden on the social security sector due to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there is a shift in the direction of recognizing the potential capabilities and experiences of the elderly and returning them to social resources. Elderly education in the age of science and technology needs to change to a direction that can build a healthy and progressive society in the future.

**Key words** : Elderly Education, Elderly Population, Elderly Education Direction, Elderly Education Methods, Elderly Education Institutions

\*정회원,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제1 저자)  
접수일: 2024년 1월 2일, 수정완료일: 2024년 1월 21일  
게재확정일: 2024년 1월 31일

Received: January 2, 2024 / Revised: January 21, 2024

Accepted: January 31, 2024

\*Corresponding Author: okaiyoon@kookmin.ac.kr  
Dept. of Education, Kook min University, Korea:

## 1. 서론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 통계 발표에 따르면, 세계 총인구는 2022년 11월 15일 기준으로 80억 명을 돌파했다.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한 식량 부족,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 보호 등 인구학적 도전들이 야기되고 있다. 매켄지 건강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6.5%에 달하는 16억 명으로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연장된 기대 수명의 결과이지만 이러한 증가세 규모는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1950년에는 65세 이상의 은퇴자 1명당 11.7명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있었다. 그러나 2022년에 그 숫자는 7로 감소했고 2040년에 4.4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 노인 부양률 변화에는 차이가 있지만, 고령화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조차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향후 수십 년 동안 거의 두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1].

과학기술 시대의 도래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령자가 차지한 비율은 1920년 4.7%에서 2020년 16.8%로 치솟았다. 2020년 기준으로 미국인 6명 가운데 한 명이 65세 이상 노인이었다는 뜻이다. 2020년 기준으로 세계적인 장수 국가로 알려진 일본이 65세 이상 노령자의 비율이 28.5%를 기록해 압도적인 으뜸을 차지했고 이탈리아가 22.6%로 2위, 그리스가 22.4%로 3위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은 16%를 기록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2].

세계와 한국의 인구 규모를 보면 2022년 세계 인구는 약 79억 7천만 명이며, 이는 2070년에는 약 103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한국 인구는 2022년 약 5천 2백만 명에서 2070년에는 약 3천 8백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와 한국의 인구구조를 보면 세계 인구 중 고령 인구(65세 이상) 구성비는 2022년 9.8%에서 2070년 20.1%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인구 중 고령 인구 구성비는 2022년 17.5%에서 2067년에는 46.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와 한국의 인구변동 요인을 보면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0.81명)은 세계의 합계출산율(2.32명)보다 1.51명 낮은 수준이다. 또한, 2020년 한국의 기대 수명(83.5세)은 세계의 기대 수명(72.0세)보다 11.5세 높은 수준이다.

2023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1,000만 명

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18.4%에 해당한다. 통계청은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가 2024년 말~2025년 초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3].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속도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이는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노인들은 경제적 빈곤과 건강 악화, 자신감 상실, 사회적 소외, 우울증, 고독사 등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이러한 노인 문제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사실상 이제까지의 노인교육은 학습자의 요구나 상황과는 별개로 예방적, 보호적 인식하에 노인복지관이나 노인 교실, 경로당을 중심으로 제공됐다[4].

노인교육은 노인의 자기실현과 삶의 질을 향상한다. 노인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취미와 관심사를 발견하고,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기 잠재력을 발휘하고, 삶에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노인교육은 노인의 사회 참여와 사회통합을 촉진한다. 노인은 교육을 통해 사회적 관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 능력을 갖추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이바지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교육은 노인의 건강과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 노인은 교육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고, 기억력과 인지력을 향상하며, 우울증과 고독감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노인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고령 사회의 중심은 결국 노인이다. 그러므로 노인은 주변 사람이 아니라 중심인이다. 이러한 고령화는 노인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도 노인교육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체계적인 노인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할 때이며 노인교육의 역할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교육은 헌법, 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제36조)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을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제36조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관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을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과 소득 보장·재가 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제36조 제1항 제1

호)이다. 경로당의 경우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제36조 제1항 제2호)이다. 노인 교실은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 유지·소득 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제36조 제1항 제3호)로 규정하고 있다[5].

노인교육 프로그램은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노인을 위한 문화 및 예술 활동, 건강 증진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노인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건강운동(41.9%), 문화예술(34.9%), 어학(10.4%), 정보화(6.7%)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집단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지 못하다[6]. 노인교육의 대상이 노인이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수행 보다는 노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교육으로 접근해 왔다. 노인교육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라는 측면에서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7].

노인교육을 통해 노인들이 사회에서 더 활발하게 참여하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은 더 많은 정보와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그에 따른 교육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기술과 연결된 활동은 노인들의 인생 질을 향상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시대 노후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는 물론 노년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교육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노인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있지만 세대 간의 지식 격차는 더욱 심화하여 지금의 노인은 정보와 지식, 더 나아가 문화적 소외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평균수명의 증가와 노인인구의 양적인 증가로 인해 노인의 사회 영향력 증가, 노인 인력자원 활용에 관한 관심, 노인에 대한 관점변화, 노인의 자기 계발에 대한 욕구 증가, 노인의 자립 의식 증가 등으로 인하여 노인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노인이 지닌 성향, 노인이 처한 상황 요인, 노인교육과 관련된 제도 요인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장애 요인들로 인하여

노인교육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노인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노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4], 노인교육과 평생교육기관 관련 연구[5], 일본 노인 교육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관련 연구[7], 노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연구[8], 노인 교육의 미래와 관련된 연구[9], 노인교육과 관련된 연구[10], 노인 교육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관련 연구[11], 노인 교육이 삶의 만족도 관련 연구[12], 노인교육과 건강 관련 연구[13], 노인 교육 방법 관련 연구[14], 노인 교육의 방향성 관련 연구(조용국, 2020) 등이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 시대 노인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기존의 노인 교육의 방향은 주로 노화에 따른 일반적인 노인 교육 활성화를 다루었다. 그러나 과학기술 시대 노인 교육은 차이가 있다. 노화가 있더라도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을 때 노화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 교육 방향은 기존의 노인 교육 방향과 차이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 시대 노인 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내용은 첫째, 노인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과학기술 시대 노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 고찰 및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 시대 노인 교육의 방향을 탐색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와 보고서, 정책문서, 교육 관련 논문 등 다양한 문헌을 검토한다. 과학기술 시대 노인 교육의 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학술 자료(국외: Education Resource, Science Direct, ERIC 등, 국내: RISS, KCI, DBPIA, KISS)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노인교육이란 단어를 통하여 저서 9권 논문 45편을 수집하였으며, 실제 본 논문에서 활용된 저서는 5권 논문은 32편이 사용되었다. 저서의 경우 노인 교육을 위한 웰빙과 웰다잉 그리고 웰 에이징(김동일, 2023), 노인교육론(임구원, 2020) 임파워먼트를 위한 노인교육의 이론과 실제(신미식, 2018) 노인교육론(박성희, 2011)이다. 논문 45편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노인 교육 관련 연구가 있다.

### III. 과학기술과 노인교육

과학기술의 발전과 노인교육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관성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첫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기술이 노인들에게 점점 더 접근 가능해졌다. 노인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을 사용하고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이러한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정보와 교육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과학기술의 진보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노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강좌를 듣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노인교육을 확장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기술 및 지식 습득을 돕는 역할을 한다. 셋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노인들에게 친구, 가족, 커뮤니티와 더 강한 연결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고 사회적 참여를 늘릴 수 있으며, 노인 교육 프로그램의 홍보와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넷째, 의료 기술의 발전은 노인들의 건강관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인들은 건강 정보를 온라인에서 얻을 수 있고, 원격진료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며, 노인교육에서 건강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된다. 다섯째, 과학기술의 발전은 노인들의 두뇌 활동과 사회 참여를 촉진한다. 인터넷 게임, 두뇌 훈련 앱, 온라인 노트북 그룹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활동은 노인들의 정신적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요약하면, 과학기술의 발전은 노인들에게 교육, 건강관리, 사회 참여, 자기 계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노인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노인들의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9].

인터넷,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은 노인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음은 그러한 활용 사례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첫째,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이다. 노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비디오 강의, 쌍방향 퀴즈, 온라인 토론 그룹 등을 포함하며, 노인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다. 둘째, 인공지능(AI) 기반 개인화 교육이다. AI를 활용한 교육 플랫폼은 노인들에게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노인들의 학습 스타일과 관심에 따라 콘텐츠를 제안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학습 과정을 최적화한다. 셋째, 가상현실(VR) 체험이다. VR 기술은 역사, 문화, 여행 등의 주제로 가상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노인들은 가상 환경에서 다른 시대의 도시를 탐험하거나 박물관을 방문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다. 넷째, 증강현실(AR) 활용이다. AR을 활용한 교육 앱은 실제 환경에 가상 정보를 추가하여 학습을 더욱 흥미롭게 만든다. 예를 들어,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면서 AR 앱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시각화하고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인터넷 동호회와 소셜 미디어이다. 노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가입하고 주변 지역의 노인들과 연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보 공유, 친목 형성 및 지식 교류가 가능하며,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여섯째, 노인건강 모니터링이다. 노인들은 건강관리를 위해 스마트워치 및 건강 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도구는 심박수, 걸음 수, 수면 패턴 등을 모니터링하고 의료 전문가와 정보를 공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기술과 도구들은 노인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노인들이 계속해서 학습하고 사회적으로 참여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노인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익히고 활용하는 교육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IV. 노인교육 현황

노인교육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더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제공되고 있다. 노인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노인의 학습활동의 경우 전체 노인의 11.9%가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월 참여 시간은 1시간~5시간이 48.8%로 가장 많았다.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내용의 경우 노인 중 44.3%는 건강관리와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 28.2%, 정보화 11.4%, 어학 5.9% 인문학 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16]. 노인 학습자는 60세 이상으로 교육활동 혹은 평생교육 참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17], 2023년 현재 노년들의 교육 수준은 향후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고졸 학력 이상의 노인은 전체 노인의 20.2%였지만 이후 2010년 27%, 2020년 44.4%, 2030년 66.6%로 학력의 비

율이 현저하게 상승한다. 이처럼 고학력을 지닌 노년의 비율이 증가하면 노인교육은 단순히 노인복지 서비스 차원보다는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18].

노인교육 프로그램과 내용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예시이다. 첫째, 컴퓨터나 인터넷 교육이다. 노인들을 위한 컴퓨터나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고 온라인 세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이메일 사용, 소셜 미디어 활용, 온라인 뱅킹 등을 포함한다[9]. 둘째, 건강 및 운동 교육이다. 노인들을 위한 건강 및 운동 교육은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체조, 요가, 걷기 그룹, 건강 스크린 링, 영양 교육 등을 포함한다. 셋째, 미술 및 공예 교육이다. 노인들을 위한 미술 및 공예 클래스는 창의성을 향상하고 예술적인 기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림, 서예, 세라믹스, 재봉술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넷째, 문화 및 역사 교육이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박물관 투어, 전통 음악 및 무용 수업, 역사 강좌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심리적 지원 및 사회활동이다. 노인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 그룹 및 사회활동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정신적인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활동은 친목 도모, 정서 지원, 상담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노인교육 기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노인교육을 담당하는 다양한 공공 및 비영리 기관이 있다. 학습활동 참여자의 학습활동 실시 기관은 노인복지관이 3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체 활용 17.0%, 시·군·구/읍·면·동 15.1%, 공공문화센터 14.4%, 사설 문화센터·학원 5.8% 등으로 나타났다[9]. 이러한 기관들은 노인들에게 교육, 문화 활동, 사회 참여 및 건강 관리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째, 노인복지센터이다. 지자체나 지역사회에서 운영되는 노인복지센터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이곳에서는 노인교육, 문화 활동, 건강 관리, 상담 및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둘째, 대학 및 커뮤니티 대학이다. 대학과 커뮤니티 대학은 노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로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제공한다. 셋째, 한국 노인대학 연합회가 있다. 이 단체는 전국적으로 노인교육을 촉진하고 지원

하는 역할을 한다. 노인교육의 활성화와 연구를 촉진하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한다. 넷째, 노인교육원이 있다. 특히 노인교육에 특화된 기관들이 있으며, 이러한 교육원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과정 및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섯째, 비영리 단체 및 자원봉사 단체이다. 다양한 비영리 단체와 자원봉사 단체들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곳은 종교단체의 노인대학들이다. 여섯째, 정부 프로그램이다. 한국 정부도 노인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IV. 과학기술 시대 노인교육의 방향

과학기술 시대에 노인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교육내용, 교육 방법, 그리고 교육 기관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과학기술 시대 노인 교육 내용 구성 방향

노인들은 나이만 드는 것이 아니다. 노인들은 나이와 함께 많은 변화를 겪는다. 노인들은 신체 기관의 변화와 노인으로 인한 역할 상실, 외로움과 소외, 질병과 죽음의 직면 등을 경험하는 복합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노인교육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8].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경로당,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노인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유형은 기초문해와 학력 보완 교육, 직업능력 그리고 문화예술과 인문 교양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19].

과학 기술 시대 노인 교육내용 구성의 경우 첫째, 디지털 기술 및 정보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 2017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디지털 정보화와 관련된 고령층의 수준은 58.3%에서 68.6%로, 디지털 정보화 접근수준의 경우 89.9%에서 92.8%로,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의 경우 41%에서 53.7%, 디지털 정보화 활용 수준의 경우 59.9%에서 71.4%로 상승하였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으며(76.6%), 고령층 가구의 인터넷 이용 가능 여부도 85.3%로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 기준, 고령층의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도

81.5%로 매년 상승한다. 이러한 추이로 볼 때 디지털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디지털 매체와 자료에 대한 수요 증가를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한 다양한 교육방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개별적으로 디지털을 이용한 새로운 지식 세계에 참여한다[9]. 노인들에게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사용법을 포함한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술 및 정보 활용 교육이 노인 교육내용 구성에서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노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면 온라인에서 더 많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②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노인들은 건강 정보, 뉴스, 엔터테인먼트, 문화 활동 등을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의 지식을 확장하고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③디지털 기술 습득은 노인들에게 경제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 금융 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노동 등을 통해 노인들은 자신의 경제적 자립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④디지털 기술은 노인들의 정신적 활동을 촉진한다. 노인들이 스마트폰 게임, 온라인 두뇌 훈련, 문화 활동 등을 통해 두뇌를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다. ⑤가족 및 친구와의 연결을 강화한다. 노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면 가족과 친구와 더 쉽게 연락하고 소통할 수 있다. 온라인 메시지 전달 앱, 비디오 통화 등을 통해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⑥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용함으로써, 노인들은 자기 능력과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 습득은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기술 및 정보 활용 교육은 노인들의 노후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사회적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노인 교육내용 구성에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자기 계발 및 새로운 기술 습득이 필요하다. 노인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선택하고 새로운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강좌와 온라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7]. 자기 계발 및 새로운 기술 습득이 노인교육에서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정신적 활동 및 노인 우울증 예방을 할 수 있다. 노인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학습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두뇌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노인 우울증 예방과 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②자아실현과 삶의 만족도 향상 때문이다. 노인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면 자아실현을 느끼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 ③노후 직업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노후에 부가 수입을 얻거나 노후 직업을 창출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자신의 역량을 유용하게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④사회적 참여와 연결 때문이다. 자기 계발 및 학습은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연결하고 참여하게 만든다. 그들이 관심이 있는 주제를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새로운 친구와 커뮤니티와의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다. ⑤기술 미래에 대비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노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면 미래에 따라가기가 더 쉬워진다. 이는 노인들의 삶의 편리함과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 노인교육에서 자기 계발과 새로운 기술 습득을 촉진하는 것은 노인들의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다양한 주제의 강좌와 온라인 자료를 제공하여 노인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필요에 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건강 및 참살이 교육이 필요하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올바른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 정신 건강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건강 및 참살이 교육이 노인교육에서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건강한 노후 지원 때문이다. 노인들은 건강한 노후를 즐기기 위해 올바른 식습관, 운동 및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건강 및 참살이 교육은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만성 질환을 예방하며,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다. ②노인 우울증 및 정신 건강 관리 때문이다. 노인들은 종종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정신 건강 교육은 노인들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관리하고 정서적 참살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③건강 비용 절감 때문이다. 건강 및 참살이 교육은 노인들의 건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예방적인 건강관리 및 생활 방식의 개선은 의료 비용을 줄이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④자존감 강화 때문이다. 건강한 노후는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노인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과정은 자아실현을 느끼게 하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15]. ⑤사회적 참여와 활동 증진 때문이다. 건강한 노인들은 더 많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건강 및 참살이 교육을 통해 노인들은 노년의 활동적인 삶을 더 즐기고 참여할 수 있다. ⑥가족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 때문이다. 건강한 노인들은 가족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건강한 노인들은 가족들에게 돌봄이나 의존성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건강 및 참살이 교육은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 2. 과학기술 시대 노인교육의 방법 방향

첫째, 맞춤형 노인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노인교육의 내용이 사회변화를 반영해야 한다[7]. 노인들의 학습 스타일과 관심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AI 및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맞춤형 교육 방법이 과학기술 시대의 노인교육에서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개별적인 학습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다양한 학습 스타일이 있다. 맞춤형 교육은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각 노인의 개별적인 학습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②효율적인 학습 경험 제공을 위해서이다. 개인화된 교육은 학습자의 능력과 성취 수준에 맞게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로써 학습자는 불필요한 내용을 건너뛰거나 학습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 ③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위해서이다. 맞춤형 교육은 학습자의 관심과 성취를 고려하여 학습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다. 학습자가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 학습 경험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해서이다. AI 및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은 학습자의 학습 패턴 및 성과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교육자나 교육 기관이 학습자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⑤지속적인 개발 및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서이다. 노인들은 노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업무

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맞춤형 교육 플랫폼은 학습자가 평생 지속적인 개발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⑥비용 효율성 때문이다. 개인화된 교육은 불필요한 콘텐츠를 배제함으로써 교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AI 및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은 노인들의 학습 경험을 개선하고, 노인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요하다. 노인들은 오관의 능력이 다 달라서 특별히 맞춤교육은 절실히 필요한 교육 방법의 하나이다[14].

둘째, 사회적 상호 작용 강화이다. 노인들이 다른 노인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증진해야 한다[7]. 그룹 활동, 토론, 커뮤니티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사회적 상호 작용 강화가 과학기술 시대의 노인교육에서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해서이다. 노인들은 종종 사회적 고립에 직면할 수 있다. 사회적 상호 작용은 노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②정서적 지지를 위해서이다. 사회적 상호 작용은 노인들이 정서적으로 공감을 나눌 기회를 제공한다. 토론, 그룹 활동 및 커뮤니티 참여는 노인들의 감정적 안녕과 심리적 참살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③지식 교류를 위해서이다. 그룹 활동과 토론을 통해 노인들은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이는 노인들의 학습과 지적 자극을 촉진한다. ④문화적 참여를 위해서이다. 노인들은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고 문화적 관심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는 문화적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⑤자아실현 및 활동성 촉진을 위해서이다.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노인들은 자신의 관심사나 취미를 추구하며 활동적인 삶을 즐길 수 있다. 이는 노인들이 삶의 목적을 느끼고 활기찬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⑥사회적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서이다. 노인들은 새로운 친구 만들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

## 3. 과학기술 시대 노인 교육 기관 운영 방향

우리나라의 노인교육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노인 교실 등의 시설 위주로 운

영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고, 대부분이 공공기관의 소유이며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 학습자의 요구나 상황에 기초하기보다는 공공기관의 위탁에 따라 정책적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복지적 차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교육적으로 다양한 노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이다[4]. 노인교육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노인교육 현황[20].  
Table 1. Current status of elderly education

기관	목적 및 내용	
1차 기관	노인 대학	노인 교실 운영자 등, 노인 지도자 양성 기관
	노인 학교	노인들 잠재 능력 개발, 건강관리 지식 함양, 교양과목, 국내외 정세, 건강관리 등, 6개월, 주 1회 이상 교육
	노인 교실	초등학교 내 운영 목적, 취미 학습, 건강관리 및 안전, 교양과 상식, 현재는 봉사 활동과 양봉 등 영농교육 중심
2차 기관	종교 기관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종교기관 내 노인학교, 노인 교실 마련 운영, 실태 파악 어려움
	사회 복지 관	노인사회교육 중심, 현재는 노인종합복지관 중심으로 운영,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기타 기관	도서관, 박물관, 여성단체 등 박물관 내 노인 대학교 프로그램 운영
	대학 평생 교육 원	일부 대학에서 운영

노인교육은 학습자의 요구나 상황과는 별개로 예방적, 보호적 인식하에 노인복지관이나 노인 교실, 경로당을 중심으로 제공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노인교육 기관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교육 센터 강화이다. 노인교육을 위한 전문 교육 센터를 더욱 강화하고 지원해야 한다. 노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시설을 제공하고, 교육자 및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면 ①한국경로당협회는 전국에 분포된 경로당을 통해 노인들에게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제공한다. 이러한 경로당은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된다. ②성북구 노인교육센터는 서울의 성북구에 위치하며 노인들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제공한다. 다양한 주제의 강좌, 문화행사 및 체육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③서울시 노인교육원은 서울에서 노인들을 위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 중 하나이다. 컴퓨터 교육, 예술 및 문화 활동, 놀이 등이 포함된다. ④대구 노인교육원은 대구 지역에서 노인들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컴퓨터 교육, 미술, 음악, 요리 등 다양한 강좌가 제공된다.

둘째, 대학이나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과 협력하여 노인들에게 대학 수업 및 자격증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면 ①고령 사회교육지원센터는 서울대학교와 연계되어 노인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 중 하나이다. 노인 교육 강좌, 연구 프로젝트, 워크숍, 세미나 등을 제공하고 있다. ②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는 고령 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노인교육에도 관심이 있다. ③경희대학교 노년 정책연구소는 노년 정책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④성균관대학교 어르신 학 연구소는 어르신 학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위한 자료 및 강좌를 제공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노인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⑤서울여자대학교 노년학과에서는 노년학 전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노인 사회와 관련된 지식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과 대학 연계 프로그램은 노인교육 분야에서 연구, 교육, 지원, 및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한다[15].

셋째, 비영리 및 봉사 단체와 협력이 필요하다. 비영리 단체 및 봉사 단체와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예를 들면 ①한국 노인 봉사활동진흥원은 노인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문화 활동을 개최하고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참여를 촉진한다. ②한국 노인 돌봄 네트워크는 노인들의 건강 및 참살이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중 하나이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교육 및 문화행사를 주최하며, 봉사자들을 모집하여 노인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③노인교육 사회적 관계연구소는 노인교육 및 사회적 관계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한다. ④노인문화예술교육협회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문화 및 예술 교육을 제공하고 문화 활동을 촉진한다. 노인들을 위한 공연, 전시회, 워크숍 등을 개최한다. ⑤어르신 사랑봉사단은 봉사자들로 구



성된 단체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을 조직하고 노인들과의 상호 작용을 촉진한다. 이러한 비영리 및 봉사 단체들은 노인교육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단체들과 협력하여 노인들에게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과학기술 시대의 노인교육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된다[5].

넷째, 정부의 행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노인교육을 지원하는 정책 및 자금을 강화해야 한다.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및 건강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한다[7]. 예를 들면 ①노인교육 예산 증액이다. 정부는 노인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 노인 교육센터나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노인들에게 저비용 또는 무료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노인교육 인프라 개선이다. 정부는 노인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다. 노인교육 센터의 시설 개선, 디지털 교육 장비 및 자료 제공, 교육자나 봉사자 교육을 위한 인프라 향상이 필요하다. ③전문 교육 및 교재 개발 지원이다. 정부는 노인교육을 위한 교육자나 강사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교재와 자료 개발을 장려할 수 있다. ④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개발이다. 과학기술 시대에 노인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르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다. 노인들이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다. ⑤봉사자 프로그램 강화이다. 정부는 봉사자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교육을 지원하는 봉사자를 유치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봉사자를 훈련하는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⑥국제 교류 및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다른 국가의 노인교육 모델 및 최상의 실천 사례를 학습하고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과학기술 시대의 노인교육은 노인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건강을 관리하며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노인교육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노력이 필요하다.

## V. 결론 및 제언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예견하고 있다. 2045년부터는 세계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7]. 노인교육을 의미하는 제라 고지(geragogy)는 geraos에서 유래하였으며, 노인교육을 통하여 길을 안내한다는 의미의 노인교육 패러다임이다[21]. 노인교육은 노인의 다양성을 수용하려는 신노년학(new gerontology)으로 주목받고 있다,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교육의 관점은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삶의 전반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으로 노인교육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10]. 과학기술 시대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노인교육의 방향은 결국 노인들이 그동안 경험한 가치와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인들의 존재와 역할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 시대 노인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은 첫째, 노인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과학기술 시대 노인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노인교육의 현황으로 노인교육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더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제공되고 있다. 노인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노인의 학습활동의 경우 전체 노인의 11.9%가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노인교육 학습활동 참여자의 학습활동 실시 기관은 노인복지관이 35.5%로 가장 많았다. 과학기술 시대 노인교육의 방향으로 첫째, 노인교육내용 구성의 경우 디지털 기술 및 정보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교육 방법의 경우 맞춤형 노인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교육 기관 운영의 경우 노인교육을 위한 전문 교육 센터를 더욱 강화하고 지원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사회제도의 구축과 재정적 투자를 사회적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자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고 있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사회보장 영역의 부담이 있지만 노인의 잠재된 역량과 경험을 새롭게 인식하여 사회적 자원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과학기술 시대의 노인교육은 미래 사회를 건강하고 발전적으로 건설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1]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

- /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80&CONTENTS\_NO=2&bbsGbn=242&bbsSn=242&pNttSn=200061,2023.01.30.
- [2]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3/05/2023052611411925519a1f309431\\_1,2023.05.26](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3/05/2023052611411925519a1f309431_1,2023.05.26).
- [3] <https://kosis.kr/search/search.do?query=노인인구>
- [4] S. Jung & H. J. Lee, "A Case Study of Local Educational Community to Facilitate Education for the Elderly: Focused on Pakmi Senior Communit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Gerontology*, Vol. 8, No. 1, pp. 81-109, 2022. <https://doi.org/10.31748/KSEG.2022.8.1.81>
- [5] H. N. Kim, "A Study on the Institutions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Elderly Educa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9, No. 6, pp. 1491-1502, 2018. DOI 10.22143/HSS21.9.6.106
- [6] K. H. Jeong, "2017 Survey on the Status of the Elderl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 [7] M. S. Shin, "The Elder Education in Japan and Some Suggestions from it for Korean Elder Education," *The Journal Of Human Studies*, Vol. 55, pp. 131-155.2021. DOI 10.33638/JHS.55.6
- [8] S. I. Lee,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hristian Senior Education Programs through Play Activities," *Theology and Praxis*, Vol. 79, pp. 385-508, 2022.
- [9] H. S. Lee & H. C. Kim, "Metaverse And the Future of education for the elderly : Focusing on the Liberal Arts Education for the Elderly in Senior Welfare Center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Gerontology*, Vol. 8, No. 1, pp. 1-20, 2022. <https://doi.org/10.31748/KSEG.2022.8.1.1>
- [10] M. K. Kim, "Semantic Interpretation of Elderly Education to Raise Awareness of Aging,"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3, No. 2, pp. 65-80.2022. DOI 10.22143/HSS21.13.2 DOI 10.22143/HSS21.13.2.5
- [11] J. G. Jung,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Revitalization of Education for the Elderl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1, No. 6, pp. 2557-2568.2020. DOI :10.22143/HSS21.11.6.180.
- [12] M. K. Park & S. H. Han, "A Study on the More Effective Group of the Elderly Education on Elderly Life Satisfaction: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Demographic Variables," *The Journal of Social Coverage Studies*, Vol. 4. No. 4, pp. 127-142, 2020.
- [13] S. J. Oh, "The Effect of the Education Level on Health and Leisure Motivation of the Elderly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income," *Leisure Welfare Management Research*, Vol. 3, No. 1, pp. 47-68.2022.
- [14] S. H. Park, "A Method of Elderly Education for Active Aging,"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Gerontology*, Vol. 4, No. 2, pp. 71-85, 2018.
- [15] Y. K. Cho, "A Study on the Direction of Elderly Education Based on Psychological Goodwill Factor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1, No. 6. pp. 2613-2624, 2020. DOI 10.22143/HSS21.11.6.184
- [1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Senior Citizen Survey Report," 2020.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2901&SEARCHKEY=TITLE&SEARCHVALUE=%EB%85%B8%EC%9D%B8%EC%8B%A4%ED%83%9C](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2901&SEARCHKEY=TITLE&SEARCHVALUE=%EB%85%B8%EC%9D%B8%EC%8B%A4%ED%83%9C)
- [17] K. H. Lee, "COVID-19 and direction of change in senior educa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Gerontology*, Spring semester 2021 Drinking competition presentation book, pp. 31-56, 2021.
- [18] S. K. Moon,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for the Elderly in preparation for the Super-aged Society: Focused on the Role of University Opening," *University and Christian Mission*, Vol. 46, pp. 37-75, 2020.
- [19] H. J. Lee, "Exploration on the activat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for the Third Age of Korea," *The Journal of integrated Humanities*, Vol. 10. No. 2, pp. 123-158, 2018.
- [20] Y. S. Kim, "A study on ways to revitalize lifelong education for the elderly: Focusing on Korea and major foreign cases,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6.
- [21] L. Veelken, "Geragogik: Das sozialgerontologische Konzept", In Becker, S., Veelken,L.,& K.P. Wallraven (Eds.), *Handbuch Altenbildung*, 87-94, Opladen, 2020.